

# 4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마 6: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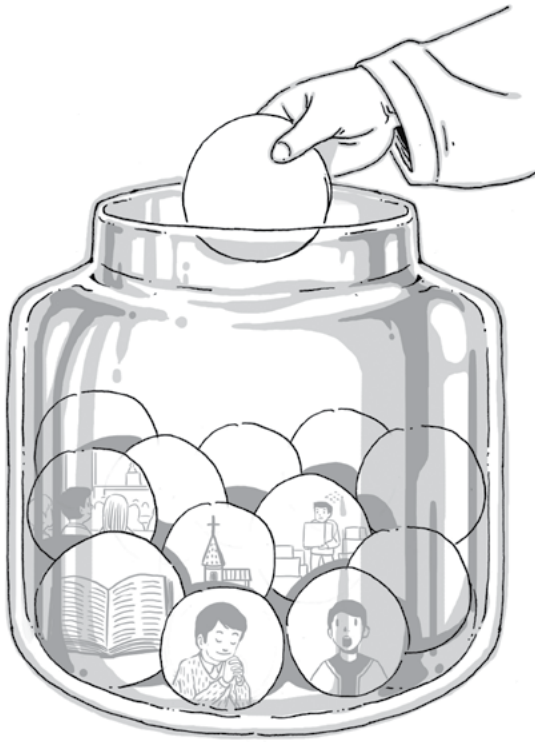
찬송가 102장 (주 예수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은혜찬송 124장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오늘 배울



1.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 두어야 함을 압니다.
2. 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버는 방법과 목적, 사용처가 중요함을 압니다.



너희를 위하여 을 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을 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있는 그 곳에는 네 도 있느니라 (마 6:19~21)



## 을 이해하기

이 세상에서 우리의 행복에 가장 큰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돈이 보물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돈을 이 땅에 쌓아 두려 합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기에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줌과 동륵, 그리고 도적이 있기에 눈에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돈은 없어지고 새어 나갑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오면 모두 없어지고 맙니다. 게다가 잘못하면 재물이 우상으로 바뀌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 길은 바로 상급을 쌓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또한 전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거기에는 줌이나 동륵, 도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땅에 마음이 있는 것이며,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 공과말씀 정리

---

---

---

---

---

---

---

---

---

---



##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for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else he will be loyal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God and mammon. (Mt 6:24)

- 1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 혹은 구절에 밑줄을 그어 보세요.
- 2 하나님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구를 선택하고 있나요?



##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1 재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과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서로 비교하며 정리해 봅시다(눅 12:16~21).

땅에 쌓는 것	
하늘에 쌓는 것	

② 나는 재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써 봅시다.

③ 재물과 관련하여 신앙생활에 실패한 인물을 성경에서 찾아보고, 우리가 주의할 점이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인물들	
주의할 점	

④ 그리스도인이 재물에 대하여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를 알아봅시다(잠 23:4~5, 딤후 6:9~10).



을 삶에 적용하기

###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시 119:56

---

---

---

---

---

---

---

---

의

시 119:57

---

---

---

---

---

---

---

---

화

시 119:111

---

---

---

---

---

---

---

---

↑

딤편 6:6

---

---

---

---

---

---

---

---

가

딤편 6:10

---

---

---

---

---

---

---

---

미

히 13:5

---

---

---

---

---

---

---

---

터

히 13:6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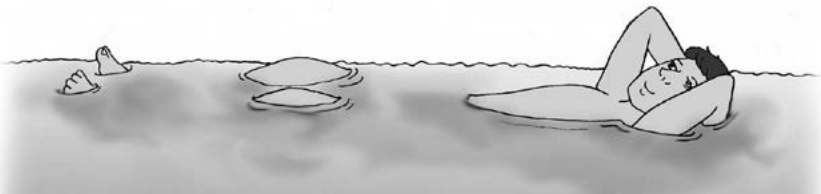
## 사해는 정말 죽음의 바다일까?

성경에서는 사해를 ‘염해(창 14:3)’, ‘아라바의 바다(수 3:16)’, ‘동해(슌 14:8)’라고 불렀고, 또 역사가 요세푸스는 ‘아스팔트의 바다’로, 그리고 현재 아랍인들은 ‘바르 룻’, 즉 ‘룻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사해라는 말은 예로니모(A.D. 348~420)가 최초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사해는 갈릴리바다와는 달리 진짜 바다일까요? 물은 바닷물처럼 짜지만 사해 역시 바다가 아닌 염호(鹽湖)에 불과합니다.

사해는 지중해 해면보다 398.5m가 낮아서 세계에서 가장 지표가 낮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형 탓에 사방에서 하루에 6백만 톤의 물이 유입되지만, 빠져나갈 곳은 전혀 없습니다. 중세에 이곳을 여행한 사람들은 사해 상공의 대기는 독을 머금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사해 상공에는 새 한 마리도 날아 다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가 살지 않는 이유는 먹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해에는 식물이 없을 뿐더러 요단강에서 밀려오는 물고기도 높은 염분 때문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사해의 규모는 남북으로 길이가 80km이고, 가장 넓은 엔게디 부근은 너비가 18km입니다. 가장 깊은 곳은 수심이 399m입니다. 사해의 물이 점차 말라가는 탓에 현재는 중간에 바닥이 드러나서 남쪽과 북쪽 사해로 나뉘어 불리고 있습니다.

사해는 또 진흙이 좋기로도 유명합니다. 덕분에 세계 도처로 사해 진흙이 머드팩 원료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진흙은 피부병에 좋다고 해서 세계 각지로부터 부유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흙 이외에도 사해는 풍부한 광물질 때문에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30% 이상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는 사해는 브롬화인,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염화 나트륨, 브롬화 마그네슘, 유황 등을 무진장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가운데 비누나 비료의 원료가 되는 염화 칼륨의 매장량은 세계가 사해 것만 사용하더라도 100년을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무제품, 의약품, 접착제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마그네슘은 전세계 소비량의 5%, 그리고 유럽 소비량의 15%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브롬은 살충제, 플라스틱 제품, 농약, 페인트 등에 사용되는데, 전세계의 26%를 사해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해산 브롬은 우리 나라에서도 현재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해를 누가 죽어버린 바다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때에 네가 보고 화색을 발하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오이라 (사 60:5)**



## 질문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약의 ‘인자’(人子)라는 말은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반면, 구약의 ‘인자’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로 표현하신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분명히 신성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사람과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6~8)

그러면 왜 사람의 아들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아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낮게 되신 것은 낮은 우리를 높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약에 예언된 “구름을 타고 오실 인자같은 이 (단 7:13)” 곧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병정들에게 잡히시고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마 26:64)”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영광의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함께 할 때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꿈을 갖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보물을 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 ● 나는 성장하는 성도입니다

신앙생활의 첫 단계는 영혼의 구원으로 죄 사함을 받음으로 되는 것이며, 평생에 단 한 번뿐인 분명한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성품의 구원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시작되어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삶을 통해 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구원을 받은 사람의 몸이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몸의 구원으로 장래의 일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 그리스도인의 꿈

올바른 꿈은 삶을 낭비하지 않고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부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 ● 봉사, 네가 날 사랑한다면

봉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봉사하는 데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참여하게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아주 작고 쉬운 일에도 그리스도인이 동참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를 통해 상급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길입니다. 전도하여 다른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을 잘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며,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쌓인 보물은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 정리활동



다음 활동 중에서 선택하여 배운 내용을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마인드맵 / 성경 속 인물에게 보내는 편지 / 단원 내용을 활용한 전도 편지  
신문 기사 / 등장 인물의 일기 / 티셔츠 디자인 / 4컷 만화 / 캘리그래피  
광고 / 포스터 / 성경 퀴즈 만들기 / 낱말 퍼즐 만들기